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측면

-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의 비판에 대한 반론 -

박병철 (부산외대)

【요약문】 필자는 이 글에서 박병철의 저서 *Phenomenological Aspects of Wittgenstein's Philosophy* (Kluwer, 1998)에 대한 박정일 박사의 서평과 김영건 박사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상학과 현상론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하여, 유아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있으며, 『논리-철학 논고』에서의 대상의 본성에 대한 견해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도가 여전히 불투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비트겐슈타인, 박정일, 김영건, 박병철, 현상학, 현상론, 유아론.

1. 비트겐슈타인은 러셀 및 프레게와 더불어 20세기 영미철학에서 분석적 전통의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영미철학계 뿐 아니라 일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는 물론 철학 외의 학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는 정작 오늘날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 사이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대한 일치된 해석이 존재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새로운 해석들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¹⁾

1) 이러한 한 예로서 최근에 출간된 Alice Marguerite Crary and Rupert Read editors (2000), *New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Timothy G. McCarthy and Sean C. Stidd editors (2001), *Wittgenstein i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Klagge ed. (2001), *Wittgenstein: Biograph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d Bloor (2002), *Wittgenstein, Rules and Institutions*, London: Routledge; Brian McGuinness (2002), *Approaches to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등을 들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 것은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스타일 자체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또 그의 전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오랫동안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그에 덧붙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그만큼 다양한 해석, 새로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석의 지평이 넓다는 것은 그의 철학이 가지는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측면』²⁾에서 보이고자 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해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석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철학적 생애를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관심사는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이며, 이 관계를 특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직접경험과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 또는 적어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지니는 현상학적 측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식화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에게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지, 직접경험과 그것을 기술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에게서조차도 나타나지 않는다는지, 아니면 현상학이라는 말은 전기가 아니라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더 어울린다는지 하는 반응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측면』에서 나의 논점은 세계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은 전후기를 관통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전후기 모두에 있어서 직접경험과 그 기술방식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가 전기에 견지했던 직접경험에 대한 특정 기술방식, 즉 현상학적 언어를 포기함으로써 현상학적 색채는 표면적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Park, Byong-Chul(1998), *Phenomenological Aspects of Wittgenstein's Philosophy*, Dordrecht, Kluwer. 이하 「현상학적 측면」으로 약칭함.

이러한 해석에 대해 최근 박정일³⁾ 박사와 김영건⁴⁾ 박사가 날카롭고도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 모두가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편의 논문을 통해서 그것들 전부에 대해 심층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먼저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가 제기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 다루어보자.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 대한 언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중기 저작이다. 『철학적 언명』⁵⁾에서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현상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물리학과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학은 법칙을 세우는 것과 관계된 반면, 현상학은 가능성만을 확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상학은 물리학이 그 이론을 세우는 사실들의 기술에 대한 문법이 될 것이라고 한다.⁶⁾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먼저 물리학과 구분되는 영역으로서의 현상학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현상학이 가능성만을 다룸으로써 사실들의 기술에 대한 문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현상학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렵지만, 같은 페이지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언급을 살펴보면 대략 그 의도가 드러난다. 요약해 보면 거기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어에서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런 본질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가 현상학적 언어라고 불러왔던 것에 도달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직접 경험에

3) 박정일(2003), 「박병철 교수의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측면』」, 『논리연구』, 제6집, 제2호, 한국논리학회, 161-172.

4) 김영건(2004), 「소여, 현상학, 모순」, 『논리연구』, 제7집, 제1호, 한국논리학회, 41-66.

5) Ludwig Wittgenstein(1975), *Philosophical Remarks* (Oxford: Basil Blackwell)

6) Wittgenstein(1975), p. 51. 가설, 설명, 이론으로 대변되는 과학적 고찰이 자신의 관심일 수 없으며, 철학에서는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언급은 그의 후기 저작인 『철학적 탐구』에서도 등장한다. Ludwig Wittgenstein(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09절.

대한 직접적인 재현(an immediate representation of immediate experience)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완전하게 명료화되어야 한다. 문법이 완전하게 명료화된다면 하나의 명제는 완전하게 분석된 것이다.

여기서 명제의 완전한 분석이라는 『논고』에서의 표현이 다시금 등장함을 알 수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러한 완전한 분석이 문법의 명료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론 문법의 명료화는 언어에서 본질적인 것을 구분해냄으로써 직접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재현을 이루어내는 것이다.⁷⁾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도입해서 사실에 대해 설명을 피하는 물리학보다는 가설 없이 순수한 기술을 피하는 현상학이 필요하지만, 가설 없는 순수한 기술은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상학적 언어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현상학적 테마에 집착하면서도 현상학의 불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법적인 탐구를 통한 현상학적 접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저작인 『색채론』에서 여전히 “실로 현상학과 같은 것은 없지만, 현상학적 문제들은 있다”⁸⁾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제가 물리학이나 심리학적 접근과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⁹⁾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하는 현상학과 관련된 어휘의 시기적 분포나 함축하는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직접 경험 및 그것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는 『논고』의 시기에는 그것이 논리(적 형식)를 통한 세계 이해, 중기에는 문법의 명료화를 통한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표현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지니게 되는 주요 난점은 『논고』에서 현상학이라는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또한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나의 현상학에 대한 언급이 현상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

7) 「대타자본」(The Big Typescript)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현상학은 문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역시 현상학이 문법의 명료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8) Ludwig Wittgenstein(1978), *Remarks on Colour* (Oxford: Basil Blackwell), III, sec. 248.

9) “심리학은 경험된 것을 물리적인 것과 연결시키지만, 우리는 경험된 것을 경험된 것과 연결시킨다.” 위의 책, III, sec. 234.

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문제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 비트겐슈타인의 논의의 맥락을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현상론으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이유로 중기 저작에 등장하는 현상학에 대한 언급이 현상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색채 문제와 관련하여 중기 저작에서는 물리학적 설명 방식을 거부하고 특정 색채 현상의 문법적 차이에 주목하여 현상학적 접근을 피하는 태도는 『논고』에서의 색채 배제와 관련된 문제가 논리와 관련된 문제였음을 상기할 때, 논리의 후예로서의 문법 개념이 현상론이 아닌 현상학이라는 넓은 개념에 의해 포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의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 보기로 하자.

3. 박정일 박사는 『현상학적 측면』의 논의에서 현상학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규정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상론과 현상학의 구분과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구분과 규정에 따르면 현상학은 현상론의 소박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⁰⁾ 한편 김영건 박사는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과 현상론을 구분하려는 박병철의 시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¹¹⁾

먼저 박정일 박사가 제기한 현상학과 현상론의 구분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 그는 현상론과 현상학에 대한 나의 일부 언급을 차례로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구분과 규정이 과연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박 교수의 구분과 규정에 따르면, “현상론”은 “현상학”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직접적 경험에 주어지는 것에 우선성을 둔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는 반면, 전자에는 현상과 실재

10) 박정일(2003), 163-4쪽.

11) 김영건(2004), 47쪽.

라는 구분과 또 우리가 현상에만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입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박 교수의 “현상학”은 “현상론”보다 더 소박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상학은 그저 현상론의 전 단계, 즉 철학적 성찰이 완결되지 않은 이전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²⁾

또한 그는 그의 글의 말미로 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교수는 이러한 개념 규정 하에서 “물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념적 혼동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논고』의 대상이 러셀의 “물리적인” 감각 자료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의 “물리적”과, 언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할 때 “물리(주의)적 언어”와 관련되는 “물리적”은 의미가 상이하다. “언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유의미하려면, “현상학적”과 “물리적”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고』와 관련해서 “현상학”이 논의될 때, 그 둘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 교수의 “현상학”에서는 실재와 현상의 구분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점은 박 교수의 애초의 규정이 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¹³⁾

박정일 박사의 글에서 현상론과 현상학의 구분에 대한 비판은 위에 인용한 것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글이 서평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하나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논증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인용문만으로는 그의 비판이 설득력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먼저 현상론이 현상학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현상론이 현상과 실재라는 구분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현상에만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입론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상론이 현상과 실재를 구분한 뒤 현상에만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입론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러한 입장이 현상학의 일부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정일 박사가 『현상학적 측면』에서 인용한 부분¹⁴⁾에 따르면 분명 현상학은 현상과 실재 간의 화해할 수 없는

12) 박정일(2003), 164쪽.

13) 박정일(2003), 171쪽.

구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현상학과 현상론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아예 현상과 실재의 구분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입장이고 후자는 그러한 구분 하에서 그 주장이 성립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유사성만으로 후자가 전자의 일부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지는 그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현상학이 철학적 성찰이 완결되지 않은 그저 현상론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상학이 현상론보다 더 소박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추가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만으로는 현상학이 왜 더 소박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만약 그가 ‘현상학적 탐구는 그러한 종류의 존재론적 개입에 열려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면, 왜 그러한 현상학적 탐구의 성격이 더 소박한 것인지 추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설사 존재론적 개입으로부터 열려 있다 할지라도 현상학적 탐구는 현상과 실재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현상론보다 더 복잡하고 차원 높은 탐구일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박정일 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인용문을 보자. 그의 언급에서 러셀의 ‘물리적’ 감각자료와 언어 패러다임 전환에서의 ‘물리(주의)적’ 언어에서 ‘물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논고』의 대상이 러셀의 감각소여(sense-data)와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했을 때, 물론 러셀이 말하고 있듯이 그 감각소여는 물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소여는 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사적(private)일 수밖에 없다. 러셀의 이러한 생각이 흔히

14) 그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더 일반적으로, 현상학은 실재의 궁극적인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경험에(즉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연구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그의 현상학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것은 현상론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감각-인상들)과 실재(물자체)간의 화해할 수 없는 구분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하지 않고 또 우리가 현상에만 직접 접근한다고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지각하는 것은 한갓 현상일 수도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실제 사물의 참된 본성 안으로 관통해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감각-인상들이 아닌,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과 완전히 독립적인 실재에 속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상학적 탐구는 그러한 종류의 존재론적 개입에 열려 있다.” 박병철(1998), p. 19.

오해하듯 감각소여에 대한 그의 입장을 현상론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러한 소여를 신경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여겼으며 그러한 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물리적 대상을 구성할 때, 결과적 관점에서 그러한 물리적 대상이 단지 사적인 현상의 세계에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물리적’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의미는 물론 중기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하나의 언어 패러다임을 나타내는 ‘물리적 언어’에서의 ‘물리적’이라는 단어와 그 뜻이 같지 않다. 중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언어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지닌 문제의식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를 어떻게 언어로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두 언어 모델--즉 현상학적 언어와 물리적 언어--모두 가능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즉, 세계는 현상학적 언어로 기술될 수도 있고 물리적 언어로 기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고』의 시기에는 현상학적 언어로 기술하는 것에 우위를 둔 것이고, 중기 이후에는 물리적 언어로 기술하는 것에 우위를 둔 것이다. 이 문제는 나의 다른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트겐슈타인이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동일시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3인칭적 방식에 의해 대상을 동일시할 때 그것은 물리적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유아론적인 1인칭적 방식에 의해 대상을 동일시할 때 그것은 직접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동일한 대상이 물리적 대상으로 동일시될 수도 있고 직접경험의 대상으로 동일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논고』의 대상이 직접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논고』의 언어가 현상학적 언어에 의한 세계 기술을 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한때는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직접경험의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를 지칭하는 언어로 현상학적 언어를 이야기했었고, 또 한때는 세계가 물리적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로서의 물리적 언어를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¹⁵⁾ 그가 존재론적 개입으로부터 열려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뜻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15)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병철(1999), 「비트겐슈타인과 비엔나 쉐클의 물리주의」, (한국철학회, 『철학』 제60집): 211-236 을 볼 것.

는 현상과 실재를 구분하여 그 입장이 현상에만 국한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여기서 『논고』의 대상이 물리적 성격을 지니는 리셀이 말하는 감각소여의 변형이라 한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논고』의 언어가 동일시하는 대상들과 그로부터 기초한 논리를 통해서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고』에서 어떻게 그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6.343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역학은 세계의 기술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참인 명제들을 하나의 단일한 계획에 따라 구성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과학적인 세계 이해 자체는 용인될 수 있는 세계 이해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완전히 일반적인 방식이며 개별적인 것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6.3432). 중기 저작에서 자주 등장하듯이 과학적 방식은 단순성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설을 채용하고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대신 어떠한 가설적 요소도 배제된 순수한 기술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용어가 『철학적 언명』에 등장하는 ‘현상학적 언어’라는 표현이다.¹⁶⁾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를 통해서 순수한 기술을 얻어내는 학문을 비트겐슈타인은 물리학과 대비하여 현상학이라고 불렀다. 『논고』에는 현상학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역학이나 뉴턴 물리학의 세계 기술 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그러한 언급이 중기 저작에 등장하는 물리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고』에서 말하는 논리적 형식에 따라 세계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가 현상학적 언어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능한 논리적 형식은 경험과 더불어 주어지는 대상의 논리적 형식이며, 그러한 논리적 형식이 규정하는 요소명제의 논리적 형식과 의미가 전체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가능성을 전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의 경험과 더불어 주어지는 논리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세계의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논고』에 제시되고 있는 논리

16) Wittgenstein(1975), pp. 51-53.

개념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논리 개념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¹⁷⁾

이제 나의 현상론과 현상학의 구분에 대한 김영건 박사의 비판을 보도록 하자. 김영건 박사는 이 문제에 대한 박정일 박사의 비판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의 구분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로 “박병철이 현상과 실재, 혹은 현상과 본체와 관련해서 러셀이나 경험자들이 주장하는 차원과 후설의 현상학에서 볼 수 있는 차원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¹⁸⁾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러한 혼란이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유아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상과 실재 혹은 현상과 본체와 관련된 구분은 박정일 박사에게 대한 반론에서 일부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덧붙일 부분은 『현상학적 측면』에서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의 현상학이 후설의 현상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러셀 그리고 독일에서는 후설을 중심으로 20세기 초반 확실한 것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하려는 공통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관심사는 한 사람한테는 감각소여로의 환원으로 다른 한 사람한테는 현상학적 환원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주요 관심사는 같았지만 서로의 방향성이나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러셀은 분석철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후설은 현상학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현상학’이라는 용어를 나름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의 ‘현상학’은 본질적으로 후설의 그것과 다르지만, 후설이 현상학에 도달하게 된 배경적 맥락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적어도 유아론의 논의에서는 일부 유사성도 발견된다는 것이 김영건 박사가 비판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다.

17) 아마도 이러한 논리를 ‘현상-논리’(phenomeno-logic)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자세 한 논의는 박병철(1996), 「『논리-철학 논고』에 나타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여훈근 외 지음, 『논리와 진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405-435를 볼 것.

18) 김영건(2004), 47쪽.

4. 유아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건 박사는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경험적 유아론과 선험적 유아론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이 현상학적 입장에서부터 귀결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⁹⁾ 또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이 소위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박병철의 주장은 경험적 유아론과 선험적 유아론을 명백하게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훗설의 현상학이 지니고 있는 선험적 차원을 올바르게 조망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²⁰⁾ 그리고 이 두 언급 사이에 유아론에 대한 나의 논의의 일부, 그에 대해 박정일 박사가 내린 평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퍼트넘과 글록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 구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그리고 후설 유아론과의 비교)에 대한 비판의 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는 여기서 경험적 유아론과 선험적 유아론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분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후설과 러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모두에게 있어서 방법론적 유아론의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현상학이 나의 경험(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주목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피하는 것이라고 할 때, 주체와 객체, 자아와 대상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구분 하에서는 주체 혹은 자아의 위치를 의미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후설의 경우가 그렇고, 그 점에서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나’는 경험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경험의 대상일 수도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후설만이 선험적 환원이라는 일종의 자아의 분화를 통해서 경험적 자아와 선험적 자아를 구분했다. 경험주의자 러셀은 ‘나’의 존재는 직접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아론을 피할 수 없지만, 논박할 수 없는 유아론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좋은 이유 또한 없다는 점에서

19) 김영건(2004), 47쪽.

20) 김영건(2004), 50쪽.

직접경험에 주의할 때 빠지게 되는 유아론의 난점을 비켜갔다.²¹⁾ 이 문제는 러셀이 상당 기간 고민했던 것이었는데, 주체라는 것은 단지 데이터의 수용자에 지나지 않으며 데이터 자체에는 주체(또는 자아)의 신호가 전혀 없다는 그의 인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²²⁾ 한동안 러셀은 자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스스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은 언제나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비주의와 논리』(*Mysticism and Logic*)가 출간되던 1917년 경이 되어서야 '나'를 논리적 고유명의 목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즉 오랜 고민 끝에 자아를 더 이상 직접 경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러셀은 이제 자아를 일종의 논리적 구성물로 이해하면서 그의 지식 체계에서 자아의 위치를 이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비트겐슈타인의 경우 역시 직접경험의 세계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의 주체인 '나'와 그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유사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하는 나는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셀이 가졌던 것과 유사한 고민이 비트겐슈타인의 『노트북』(*Notebooks 1914-1916*)에 등장한다.

나는 대상이 아니다.²³⁾

나는 모든 대상과 객관적으로 직면한다. 그러나 나와 직면하지는 않는다.²⁴⁾

21) Bertrand Russell(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2-23쪽을 볼 것. 여기에서 러셀은 유아론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 관점에서 그것을 참이라고 가정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한다.

22) Bertrand Russell(1917), "Relation of Sense-Data to Physics", in *Mysticism and Logic*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p. 112.

23) Ludwig Wittgenstein(1971), *Notebooks 1914-1916*, 2nd ed.(Oxford: Basil Blackwell), 7 August 1916, p. 80.

24) Wittgenstein(1971), 11 August 1916, p. 80.

자아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아는 경험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은 『논고』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 주체만을 인정함으로써 경험적 자아는 부정했지만,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주체는 세계의 한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후설의 선험적 자아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논고』 5.632, 5.633).²⁵⁾

다만 비트겐슈타인의 자아는 세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후설의 경우와 달리,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의 자아는 세계의 한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구성하는 자아인 후설의 선험적 자아와도 다르다. 이처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아론에 봉착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후설이나 러셀이나 비트겐슈타인이나 모두 순수하게 경험적인 것만을 받아들인다는 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경험의 주체와 경험의 대상의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구분이 직접경험--즉 후

25) 이 글의 익명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심사평에서 '나'와 그 대상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고민이 러셀의 그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나의 생각이 심리적, 정황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최종원고에 첨가하여 인용한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동일한 문제를 공유했으나 해결 방안이 달랐다고 말할 수 있으며, 러셀은 유아론을 비껴가고 비트겐슈타인은 유아론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고』의 유아론은 물론 중기 저작인 『청색책과 갈색책』(*The Blue and Brown Books*), 『철학적 언명』(*Philosophical Remarks*)에 등장하는 유아론의 논의는 전부 경험의 영역에서 주체(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 있는 언어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러셀은 논리적 원자론을 발전시켰지만 비트겐슈타인도 그랬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으므로 첨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심사평에는 부분적으로 동의 하며, 나 역시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을 쫓아 논리적 원자론을 받아들였다고 보지 않는다. 논리적 형식에 대한 러셀의 생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독자적인 입장을 발전시켰다는 내용은 1980년대 일부 학자들의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며, 나의 생각은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철학적 교류가 한 사람에게서는 논리적 원자론으로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그와 유사하지만 결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철학적 입장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논고』의 대상을 실재론적 혹은 원자론적으로 보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논고』 해석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0년대에 이러한 입장을 내세운 대표적인 인물은 David Pears이며, 1990년대에는 David G. Stern이 『논고』를 논리적 원자론으로 규정한 대표적 인물이다. David G. Stern(1995), *Wittgenstein on Mind and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를 볼 것.

설 식으로 말하면, 나의 의식에 주어진 것--에 주의하여 세계의 이해를 꾀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이라고 말한 것이며, 이렇게 현상학적 관점에 서게 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의미 있게 되므로 유아론에 빠지는 것은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 그리고 그것의 후설의 유아론과의 비교에 있어서 경험적 유아론과 선험적 유아론의 구분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 이 문제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나오는 유아론이 아니라 현상론적 관점에서 귀결되는 유아론으로 볼 이유도 없다. 후설, 러셀, 비트겐슈타인 모두에게 있어서 유아론이 귀결되는 출발점--직접경험에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여 세계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후설이 선험적 유아론을 발전시킨 것은 그러한 출발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²⁶⁾

5.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가 다음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논고』에서의 대상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제시한 대상의 성격은 마치 러셀의 직접지의 대상(object of acquaintance) 또는 감각소여와 유사한 우리의 경험에 주어진 바와 같은 것이었다.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 공히 이러한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말한다. 먼저 『논고』에서는 어떤 대상의 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대상을 감각소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

사실 『논고』의 대상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서 이러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특히 대상을 현상론적인 것으로 이해한 논리실증주의자들

26) 『논고』의 유아론 그리고 그것과 후설의 유아론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현상학적 측면』의 제2장, 4-5절에서 충분히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유아론을 현상론의 측면에서 논의한 가장 훌륭한 해석은 David Pears(1988), *The False Prison* (Oxford: Clarendon Press)을 볼 것. 또한 페어스야 말로 『논고』를 칸트 철학에 대한 언어적 전환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논고』를 인식의 한계를 현상론으로 국한시킨 『순수이성비판』과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이 간과하는 점은 비트겐슈타인이 대상의 본성에 대해서 왜 침묵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가 침묵한 이유는 대상을 실재론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철학자나 논리학자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특히 대상을 주어진 것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대상이 있다 없는데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대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나의 논점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정확한, 주변적, 또는 간접적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대상의 본성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 곧 대상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대상을 비실재론적으로 보았다는 해석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의 대상을 경험의 대상으로 보는 해석에 대한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비판이 되겠지만, 박정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는 그러한 방식의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상을 경험의 대상으로 여기게 해주는 증거는 여럿 나열할 수 있다. 먼저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후기 저작인 『철학적 탐구』에서 자신의 『논고』에서의 입장을 스스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름들이 실로 단순한 것을 지칭한다는 생각 뒤에 무엇이 놓여있는가? 『테아이테투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원초적 요소들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지워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달리 규정할 수도 없다.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규정 없이 이름지워질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원초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초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것이 그 자체로 복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요소들의 이름

들 역시 같이 결합함으로써 기술적 언어가 된다. 왜냐하면 말의 본질은 이름들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러셀의 ‘개별자’(individuals)와 (『논리-철학 논고』에서의) 나의 ‘대상’(objects)이 바로 그런 원초적 대상들이었다.²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대상’이 러셀의 ‘개별자’ 즉 감각소여와 유사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원초적 요소로서의 단순자는 있다 없음을 말할 수 없는 표현 불가능한 것의 영역에 놓이게 됨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단순자는 정의될 수 없고 이름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의 인용문은 그러한 생각이 자신이 『논고』에서 이름의 성격을 규정한 방식과 동일한 것이라는 데서 『논고』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대상이 러셀의 개별자(개별자의 대표적인 예가 감각소여다)와 유사한 것이었음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나 이 점에 대한 추가적 증거가 비엔나 서클 멤버들의 비트겐슈타인과의 대화를 책으로 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스만(Friedrich Waismann)의 기록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요소명제에서 나타나는 기호는 원초적 기호(요소적 기호)라고 불린다.

원초적 기호는 정의에 의해 분석될 수 없다.

원초적 기호의 의미는 지적(pointing)에 의해서만 지시될 수 있다.²⁸⁾

위 인용문은 바이스만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저작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언급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급은 『논고』에서의 비트겐슈타인의 언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²⁹⁾ 『논고』

27) Ludwig Wittgenstein(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46절.

28) Brian McGuinness ed. (1979). *Ludwig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Oxford: Basil Blackwell), 250쪽.

3.26와 4.2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름은 정의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해부될 수 없는 원초적 기호라고 말하고 있다. 이름이 정의에 의해서 설명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름이 지칭하는 바--즉, 대상--가 직접적으로 경험에 주어지는 파편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에 잘 들어맞는다. 즉 러셀에서 직접지의 대상은 '이것' 혹은 '저것'과 같은 논리적 고유명에 의해 지칭될 수밖에 없는 경험의 파편들이었는데, 그러한 논리적 고유명이 원초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이름도 더 이상 분석이 불가능한 원초적인 이름인 것이다. 즉 비트겐슈타인의 대상은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제스처와 더불어 '이것'과 같은 이름을 통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옳은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예는 말로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침묵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상의 성격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 김영건 박사는 대상과 함께 논리적 대상이 경험에 주어진다는 나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러한 비판의 근거로서 그는 『논고』의 5.552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현상학적 측면』에서 동일한 인용문을 가지고 나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시도한 바 있다. 명제 5.552는 동시에 비트겐슈타인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자.

김영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박병철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박병철에 의하면 논리의 가능성은 즉각적인 경험에 의존해 있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이 즉각적인 경험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러나 논리와 경험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다음처럼 말한다.

29) 사실 바이스만은 이 글을 포함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감수 하에 『논고』의 해설서를 출간하려고 계획했으나 비트겐슈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두 사람 생전에는 출판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McGuinness(1979)의 "Introduction"을 참고할 것.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험'은 어떤 것 혹은 다른 것이 사물의 상태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논리는 모든 경험에 선행한다. 즉 논리는 무엇이 그렇게 있다는 것에 선행한다. 논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에 선행한다. (T. 5.552)

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경험 아닌 경험이며, 하예튼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을 제외하고 오히려 논리는 모든 경험에 선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의식에 나타나는 즉각적 경험을 주목함으로써 해명하고자 했던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것이 박병철의 해석처럼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라고 해도, 그것은 아마도 별 설득력이 없는 작업일 것이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경험에 논리를 정초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실패는 이미 경험론자의 작업을 통해 잘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위의 인용문에서 김영건 박사의 비판 부분만을 본다면 설득력 있는 비판인 것처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논지, 아니면 적어도 『논고』의 5.552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것처럼 보인다. 『논고』 1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는 일어나는 것의 총체라고 하고 있다. 『논고』 2와 2.01에서 보이듯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사태의 존재를 의미하며, 사태란 대상들의 조합을 뜻한다. 그리고 2.014에서 보듯이 모든 대상들이 주어지면, 그와 동시에 모든 가능한 사태들 또한 주어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상들이 주어짐과 동시에 가능한 모든 대상들의 조합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며, 바로 그 점에서 대상과 함께 각각의 대상이 다른 어떤 대상들과는 조합이 가능하고 어떤 대상들과는 조합이 불가능하지 않은가를 규정하는 대상의 논리적 형식도 또한 주어진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가능한 대상들의 조합의 총체인 모든 가능한 사태들로 세계가 이

30) 김영건(2004), 53-54쪽.

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상들의 논리적 형식이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세계가 무엇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대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인 것은 아니다. 논리는 아 프리오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대상이 무엇인가--어떠한 대상들이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경험적인 문제이며 아 프리오리한 방법으로는 대답이 주어질 수 없다. 이제 다시 5.552를 보자.

5.552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험'은 어떤 것 또는 다른 것이 사물의 상 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이 아니다.

논리는 모든 경험--즉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에 선행한다.

그것은 "어떻게?"라는 물음에 선행하지만, "무엇?"이라는 물음에 선행하지는 않는다.

이 인용문에서 첫 문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험은 러셀이 『지식의 이론』³¹⁾에서 말한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다. 러셀은 그 글을 쓰고 있던 1913년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에서의 '모든'이나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 그리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다"에서의 '그리고'와 같은 논리적 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언사의 순수한 논리적 형식을 직접 경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그 당시에 러셀의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러한 비판은 『논고』의 몇몇 군데 등장하고 있다. 5.552의 첫 문장 역시 그러한 추상적이지만 직접 경험을 필요로 하는 논리적 경험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러셀이 필요로 했던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논리적 형식은 비트겐슈타인에게 대상은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대상이 다른 어떤 대상들과 결합하여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5.552의 두 번째 문장에 이어서 나오듯이

31) Bertrand Russell(1984), *Theory of Knowled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이는 결국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 ‘무엇’에 대한 대답은 경험과 동시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논리가 관여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경험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 대해서 손가락 제스처로 지적하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어떻게 대상들이 조합되는가?”라는 물음은 물어질 수 있다. 그것은 대상들이 조합되어 세계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문제로서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알려지는 논리적 형식들이 그 ‘어떻게’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들의 조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 대상과 함께 주어지는 논리적 형식은 각각의 조합의 가능성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³²⁾

결국 5.552는 나의 직접 경험에 대상과 그 대상의 논리적 형식이 함께 주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점을 지지해주는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위에서 김영건 박사는 설사 나의 해석이 옳다 해도 경험을 논리에 정초시키려는 시도가 경험론자들의 작업에 의해 실패되었으므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판은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건 박사의 과제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나의 해석을 비판하는 것이지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논리와 경험과의 관계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문제이며, 경험을 논리에 정초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의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해석이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7.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현상학적 측면』에 대한 박정

32) 『논고』 5.552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페어스(David Pears)가 최초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페어스는 『논고』의 대상을 러셀적인 의미의 경험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보지만 대상을 그저 이름에 대응하는 논리적 장치라는 껍데기로 보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하면서 대상의 실재론적 성격을 인정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고』의 대상의 뿌리가 러셀의 논리적 원자론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대상이 주어짐과 동시에 논리적 형식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David Pears(1977), “The Relation Between Wittgenstein’s Picture Theory of Proposition and Russell’s Theories of Judgement”, *Philosophical Review*, vol. 86, reprinted in Stuart Shanker ed.(1986),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s*, vol. 1, pp. 97-98을 볼 것.

일 박사와 김영건 박사의 비판의 주요 포인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비판의 일부는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일부는 나의 논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왔다는 점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제공한 값진 비판은 『현상학적 측면』에서 현상학의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지닌 현상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보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서도 간간히 언급했듯이, 『현상학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은 분명 후설이나 여타 현상학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그가 ‘현상학’ 또는 ‘현상학적 언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자 했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철학에 있어서 현상학과 관련된 부분이 풀리지 않는 퍼즐 혹은 해석상의 난점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비트겐슈타인 사후 50년이 흐르는 동안 비트겐슈타인 연구의 대세는 그러한 현상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무지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우 드물긴 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대륙철학계에서 먼저 다루어졌고, 그러한 성과는 영미 철학계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분석적 전통에 속해 있으면서도 대륙철학에 대한 이해 또한 깊은 일부 철학자들의 공헌에 힘입은 바 크다. 그들의 성과가 얼마나 성공적인 것인가의 여부는 아마도 시간이 답해줄 문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의 첫머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시도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남아있는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을 통해 그의 현상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현상학’, ‘현상학적 언어’, 또는 ‘현상학적 문제’라는 표현을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사소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그의 철학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 퍼즐로 남는다고 할 때, 그에 대한 해명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이다.

『현상학적 측면』에서 나는 그러한 해석상의 한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후설의 현상학과 의 직간접적인 관련성 여부 및 차이점을 찾으려는 노력 또한 시도하였으며, 산재한 비트겐슈타인의 언급들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현상학이 어떤 것인지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아마도 철학자들은 후설의 현상학 혹은 근대 철학의 한 유형으로서의 현상론의 어휘에 너무 익숙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파악한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은 그들 중 어느 것보다도 다른 생각이다. 이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 없이 비트겐슈타인의 현상학 또는 그러한 해석을 단순한 현상론과의 혼동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마치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후설 현상학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해석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현상학적 측면』은 힌티카(Jaakko Hintikka)교수가 제시한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일 박사의 서평에 언급된 대로 힌티카 교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대단히 유사하다. 『현상학적 측면』이 힌티카 교수의 해석에 많은 빛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 『현상학적 측면』이 힌티카 교수의 해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힌티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의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나의 작업은 힌티카의 해석에 기초하여 그가 다루지 않은 주제로 그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하는 ‘현상학’의 어원에 대한 탐구, 직접 경험에 주목한 후설, 러셀, 무어, 비트겐슈타인의 공통점, 비트겐슈타인의 시간관, 색채관, 상(aspect)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등은 『현상학적 측면』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비트겐슈타인이 다루고 있는 철학적 주제들에 힌티카의 해석을 적용시키려는 나의 고유한 시도였다.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측면은 어렵지만 밝히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할 영역이다. 남아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제약 없는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측면에 대한 무지나 무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영향력이 크든 작든 그러한 시도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현상학에 대한 좀더 다양한 해석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³³⁾

참고 문헌

- 김영진(2004). 「소여, 현상학, 모순」, 『논리연구』, 제7집, 제1호, 한국논리학회.
- 박병철(1999). 「비트겐슈타인과 비엔나 씨클의 물리주의」, 『철학』 제60집, 한국철학회.
- 박정일(2003). 「박병철 교수의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현상학적 측면』」, 『논리연구』, 제6집, 제2호, 한국논리학회.
- McGuinness, Brian ed. (1979). *Ludwig Wittgenstein and the Vienna Circle*, Oxford: Basil Blackwell.
- Park, Byong-Chul(1998). *Phenomenological Aspects of Wittgenstein's Philosophy*, Dordrecht: Kluwer.
- Pears, David (1988). *The False Prison*, Oxford: Clarendon Press.
- Pears, David (1977). "The Relation Between Wittgenstein's Picture Theory of Proposition and Russell's Theories of Judgement", *Philosophical Review*, vol. 86. Reprinted in Stuart Shanker ed.(1986),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s*, vol. 1. London: Croom Helm.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3) 이 글에 대해 심사평을 통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의 지적에 따라 이 글의 일부 내용이 보완되었다.

- Russell, Bertrand (1917). "The Relation of Sense-Data to Physics". In *Mysticism and Logic and Other Essay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Russell, Bertrand (1984). *Theory of Knowledg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Shanker, Stuart ed.(1986).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s*, vol. 1. London: Croom Helm.
- Stern G. David (1995). *Wittgenstein on Mind and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genstein, Ludwig (1922/196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Wittgenstein, Ludwig (1958). *The Blue and Braun Books*. Oxford: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1). *Notebooks 1914-1916*.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5). *Philosophical Remarks*. Oxford: Basil Blackwell.
- Wittgenstein, Ludwig (1979). *Remarks on Colour*. Oxford: Basil Blackwell.